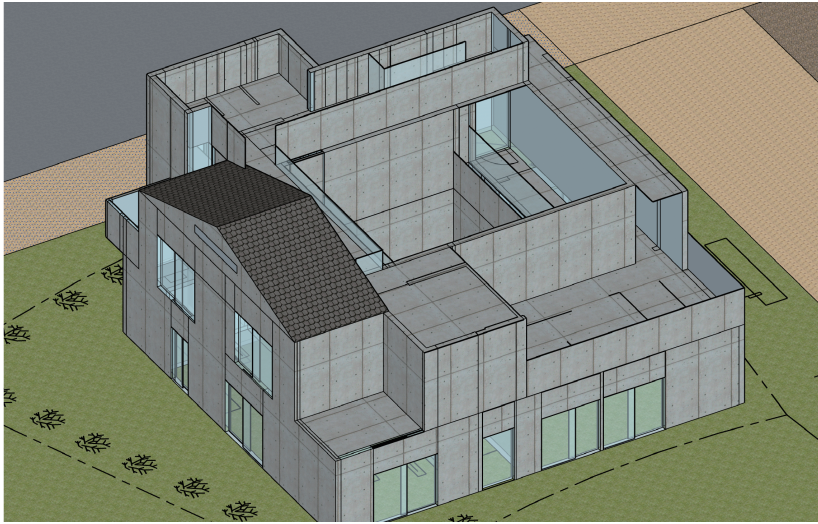


# MUSIC HOUSE

Design by Kwak Hoyun



## Syn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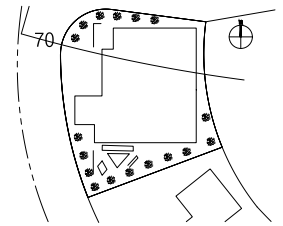
위치 : 세종특별자치 6-4 생활권 B7구역  
 대지면적 : 401.1m<sup>2</sup>  
 건축면적 : 201.8m<sup>2</sup>  
 건폐율 : 49%  
 연면적 : 301.2m<sup>2</sup>  
 용적률 : 69%  
 규모 : 지상 2층

##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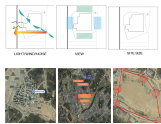
공유마당을 통해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한다. 합주실을 무대, 공유마당을 관객석으로 우리를 위한 스테이지를 완성한다.



Plan



##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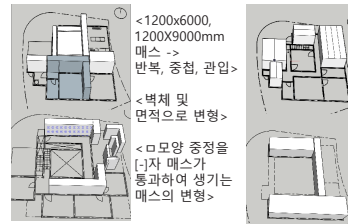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도는 수도의 행정업무의 역할 방벽으로 이루어진 계획도시이다. 도로 고속화 공항이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유학생들은 커뮤니티 특화지역으로 유치원부터 중고교가 한블럭에 위치한다. 대문은 위의 연결도로가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직통으로 연결된다. 공동주택 단지처럼 보일 수 있음과 이웃간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이다. 관공동의 사계로 지역내 유대감 형성이 다 할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으며, 세종시의 가치유형에 기대된다.

## Site Image



##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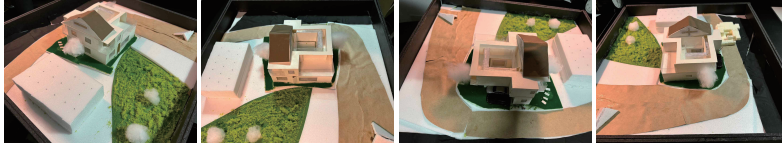
## Space Program

음악가 부분인 클라이언트의 의뢰로 설계가 시작되었다. 가족 구성원은 바이올린연주가 남편(47), 비올라 연주가 아내(43), 조동학생 딸(8), 3명으로 구성된다. 아내는 요리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해 아일랜드가 넓은 것을 희망한다. 부부는 레슨실, 지인초대시 넓은 합주실, 자기기부로 마을 주민을 위해 연주회를 열 수 있는 가변적인 넓은 합주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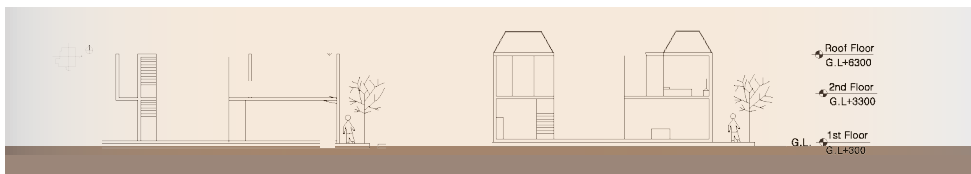
## Concept

<음악적 공간>  
 선율적 건물내 외부 공간, 중정의 폐쇄성과 공유마당의 연결성의 타입, 2층 벽들이 만드는 인공 구조물 공간과 중정의 시너지, 마치 안도 다다오의 모사카에 있는 난바 피크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빛의 교차, 진입구의 은폐되어진 콘크리트 미로가 떠오르기도 한다. 막다른 공간에 다다른면, 새로운 공간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정과 같은 느낌이다.

## Model Image



## Section



## Elevation

